

“외할머니 보며 꿈 키워...연기는 내게 힐링”

(원로배우 손숙)

힘든 시기 운명처럼 만난 첫 주연작
나고 자란 호주서 버티며 연기 공부
부모님 고향인 한국서도 공개 뿌듯
박찬욱·봉준호 감독님과 작업 꿈 꿰
다양한 작품·캐릭터 끊임없이 도전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예 하예린(24)은 원로 배우 손숙(78)의 외손녀이다. 해외에서는 파라마운트+ 오리지널 시리즈 '헤일로'로 화려하게 '주연'으로 데뷔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외할머니의 이름과 함께 관심 받고 있다. '손숙 외손녀'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16일 화상으로 만난 그는 “할머니가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의연해했다. 최근 티빙을 통해 '헤일로'를 “부모님의 고향”이자 “꿈의 출발점”인 한국에도 공개돼 “기쁘지만 하다”고 웃었다.

● “할머니 따라 연기자 꿈 키워”

손숙은 그의 “영원한 롤모델”이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최근 ‘헤일로’ 홍보 차 한국을 찾은 손녀딸을 아무 말 없이 “힘들지?”라며 어깨를 토닥여주었다.

“예전엔 어떻게든 ‘하예린’으로 알려지고 싶어서 할머니의 이름을 숨겼죠. 지금은 50년 넘게 연기를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를 따라 열심히 하면 그뿐이란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는 제 ‘열렬한 팬’입니다.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제 사진을 깔아놓고 주변에 자랑하기 바빠요.”

“연기자의 꿈”을 가진 순간도 다섯 살 무렵 할머니의 연극을 보던 날이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바쁘게 분장을 고치고, 대사를 맞춰보는 배우들을 구경하면



파라마운트+ 오리지널 시리즈 '헤일로'의 주연 하예린이 '외할머니인 배우 손숙을 따라 평생 연기할 것'이라며 다부진 각오를 다졌다. 사진제공 | 파라마운트+

서 “저렇게 자신감 넘치고 멋진 사람들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키웠다.

“제가 살던 지역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어서 때때로 왕따나 인종차별을 당하며 마음고생을 했어요. 치열하게 연기공부를 하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도 많았죠. 그래도 버텼어요. 수많은 감정표현을 하는 연기야말로 제게는 ‘힐링’이었거든요.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배우는 힘든 직업’이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지 뭐예요. 하하하!”

● “언젠가 박찬욱 감독 만날래요.”

그렇게 버티다가 2019년 “운명 같이” ‘헤일로’를 만났다. 시드니 국립극예술원 졸업 작품을 만들던 중 “선배가 보내준 배우 모집 공고”가 인생을 바꿨다. 장대한 우주 전쟁을 그리는 SF드라마에서 반군의 딸 ‘관 하’를 연기하며 세계 시청자에 눈도장을 찍었다.

“2년 반 동안 드라마에만 매달렸어요. 옆통수의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린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했고, 액션신을 연기하다 허벅지 부상을 당하기도 했죠. 부담이 컸지만, 거기에 빠지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서 최선을 다 하지는 생각만 했어요.”

한국계 배우와 한국어 대사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연기하며 “케이(K) 콘텐츠의 힘”을 제대로 느꼈다. “방탄소년단이나 ‘오징어게임’을 외치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다양한 작품과 캐릭터에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그제 동양인 배우로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언젠가는 박찬욱, 봉준호 감독님과 작업할 날도 꿈꿔요. 할머니와 한 영화에 출연하게 된다면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단편 영화·오디오무비... 곽경택 감독의 ‘무한 변주’

‘스쿨카스트’ 이어 하반기 ‘극동’ ‘소방관’ 공개



곽경택 감독

영화 ‘친구’ ‘극비수사’ 등을 연출한 곽경택 감독이 단편영화와 오디오무비를 선보인다.

곽경택 감독은 단편영화 ‘스쿨카스트’를 16일부터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전체관람가+ :숏버스터’를 통해 공개했다. 1995년 ‘영장 이야기’ 이후 27년 만에 만든 단편영화이다.

교실에 존재하는 학생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를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빗대 다섯 가지 계급으로 나눠 표현한 영화는 불평등한 사회에 비판적 메시지를 던져주며 누리꾼의 호평을 받고 있다. 곽 감독은 “나에게는 신예를 발굴할 기회이고, 배우들에게는 역할을 펼쳐보일 기회”라며 600:1의 캐스팅 오디션을 거쳐 홍예지, 이정민, 이재연, 이지안 등을 발굴했다.

곽 감독은 하반기에는 오디오무비 ‘극동’도 내놓는다.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에 자막과 CG 등 비주얼 효과를 덧입히는 콘텐트로 ‘보는’ 영화가 아닌 ‘듣는’ 영화를 표방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차지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김강우와 유재명, 곽동연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또 2019년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이후 3년 만에 장편영화 연출자인 ‘소방관’으로 관객과 만난다. 6명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2001년 서울 홍제동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곽도원, 주원, 유재명, 이우영 등이 주연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흠뻑쇼’ 어찌할꼬...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사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한 사이의 여름 콘서트 ‘흠뻑쇼’가 물 낭비, 감염 예방 등의 이유로 우려를 낳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위터파크 방불케 하는 콘서트 매진
“가뭇속 물낭비” “젖은 마스크 위험”
방역당국 자제 권고에 고민 깊어져

가수 싸이가 3년 만에 여는 여름 콘서트 ‘흠뻑쇼’를 예매와 동시에 전 회 매진시키며 ‘티켓 파워’를 자랑하지만,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싸이는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인천, 서울, 강릉, 여수, 대구, 부산에서 7주에 걸쳐 ‘흠뻑쇼’를 진행한다. 싸이의 대표 브랜드 콘서트로 공연 제목처럼 대량의 물을 무대와 객석에 퍼붓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치 위터파크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에 싸이만의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로 평

가반아왔다. 실제로 매년 티켓 예매가 시작되면 ‘픽케팅’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올해에도 마찬가지여서 19일 인터넷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에 따르면 ‘흠뻑쇼’ 예매가 시작된 16일 오후 8시 접속자수가 대거 몰려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서버가 다운되 기까지 했다.

2019년 감염병 확산 이후 열리지 못하다 3년 만인 올해 재개되면서 티켓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스탠딩 SR석이 정가(143,000원)의 6.2배나 호가하는 90만 원에 재판매한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하지만 올해는 “물을 낭비한다”는 일부 목소리를 키우기도 했다. 극심한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싸이는 이

번 공연 회당 300톤의 물을 뿌릴 예정이다. 최근 방역당국까지 “젖은 마스크가 세균 번식 등 위험이 있는 등 감염에 더 취약해 가뭇속 물을 뿌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각종 야외 행사에서 호흡기 전파 감염 위험도가 높아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춤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개인 방역 수칙”이라면서 “예정대로 방송 마스크를 1인당 1개씩 지급하고 현장에서 방역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열 TV 예능 안 부러운 유튜브 예능

‘미노이 요리조리’ 등 조회수 폭발
보기 힘든 스타 출연 등 개성 뚜렷
시청률 하락세 전환 TV 예능 긴장

유튜브 예능 콘텐츠들이 강렬한 개성으로 TV 속 예능프로그램 못지않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요리조리’,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등은 전문 방송인이나 스타 없이도 팬덤을 빠르게 늘리면서 방송가 안

팍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제작진은 시즌제 운영, 시리즈 확장 등을 통해 콘텐츠 브랜드를 강화시키겠다는 의욕도 내비치고 있다.

가수 미노이와 이영지가 각각 이끄는 ‘요리조리’와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은 최근 시즌제 안착에 성공했다. 이들이 손님과 나누는 솔직한 대화들이 최고 600만 뷰를 넘길 만큼 인기를 끌었다. 콘텐츠에는 예능프로그램 섭외를 거절해온 스타들

이 “팬심”으로 기꺼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요리조리’에는 배우 정유미, 가수 장기하 등이 잇달아 출연했고, 24일 새 시즌 시작하는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에는 가수 선미, 세븐틴 호시 등이 나서기로 했다.

이달엔 웹툰작가는 ‘침착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새 시리즈 ‘침착인물사전’을 내놓으며 시선몰이 중이다. 여러 편의 영상을 함께 출연한 주호민 작가와 아예 공동 진행자로 나서고 있다. 3주 만에 영상마다 100만 회를 훌쩍 넘기며 플랫폼 내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에 진입했다. 이용진·유튜버 풍자 등이 출연하는 ‘바퀴

달린 임’도 누적 조회수 4200만 뷰를 넘기면서 최근 시즌2 제작을 확정했다.

유튜브 콘텐츠의 강세에 방송가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SBS ‘미운 우리 새끼’(11.8%), MBC ‘나 혼자 산다’(7.6%), MBC ‘놀면 뭐하니?’(5.5%) 등 인기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시청률 하락세를 보이면서 방송 관계자들도 유튜브 콘텐츠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예능프로그램 PD는 “콘텐츠 개성만 뚜렷하다면 제작비 대비 인기를 금방 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눈을 돌린 연출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3

BTS 신곡 ‘Yet To Come’ 등 7곡 오피셜 차트 진입

그룹 방탄소년단이 10일 발표한 신곡 ‘Yet To Come’(Yet To Come)과 ‘달려라 방탄’이 각각 영국 오피셜 차트 27위와 62위에 올랐다. 오피셜 차트는 미국의 빌보드와 함께 세계 팝 시장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차트 중 하나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 이후 약 4개월 만에 차트에 진입했다. 한편 멤버 정국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인 찰리 푸스와 협업한 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를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찰리 푸스는 17일과 18일 SNS를 통해 정국과 함께 한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박진영, 유튜브 ‘첫열매들’서 성경 강사 변신

가수 박진영이 유튜브를 통해 성경 강사로 변신했다. 박진영은 유튜브 채널 ‘첫열매들’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성경 강의 영상에 직접 출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채널은 2020년 10월 개설됐으며 박진영은 올해 1월 올라온 첫 영상을 시작으로 18일 올라온 23번째 영상까지 모든 영상에 등장했다. 19일 오후 기준 총 조회수 180만 회를 넘었다. 박진영은 “난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적이 없다. 이런 데 서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앞에 서도 된다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블핑 ‘킬 디스 러브’ 뮤비 조회수 16억 돌파

그룹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9일 오전 3시 17분께 16억 회를 넘어섰다. 유튜브에 공개된 지 약 3년 2개월만의 기록이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16억 회 이상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최초의 케이(K)팝 아티스트가 됐다. 앞서 16억 회를 달성한 블랙핑크의 히트곡 ‘뚜두뚜두’는 19억 회를 향해 가고 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블랙핑크의 역대 조회수 콘텐츠는 총 32편이며 누적 조회수는 240억 회 이상이다. 채널 구독자 수는 7480만 명으로 이 분야 전 세계 아티스트 톱이다.